

■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이렇게...

'카드결제 의료비' 올해도 2중 공제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봉급 생활자들이 내년 초에 한푼이라도 더 공제를 받으려면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제내용을 상세하게 공부하고 달라지는 제도도 숙지해야 한다.

◇달라지는 제도=올해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병원 진료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분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문에서 함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조정된다. 종전에는 매년 1~12월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올해는 1~11월 지출분까지만 적용되며 내년에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줄어든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15%로 축

보험료 등 8개 항목 국세청서 조회·출력

가족중에 중병환자 있다면 장애인 공제

소된다.

대신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돼 연간 300만원 한도(다른 연금저축과 합산)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봉급생활자가 일일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일괄조회해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일괄조회가 가능한 항목은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8개이며 다음달 초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

연봉 2천5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 신청할 수 있고 이사는 2번 이상은 다녔어도 모두 적용된다.

◇유의해야 할 점=그동안 현금영수증 홀페이지에서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에 내년부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올해 12월부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형수술이나 보약구입은 내달 이후로 미뤄야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연말 정산부분은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다음달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ju.co.kr

● 연말정산 궁금증 3가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한번쯤 품게 되는 궁금증 3가지에 대해 알아봤다.

-소득공제 100만원 더 받으면 얼마나 환급받을까.

▲연말정산의 핵심은 환급받는 액수를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다.

돌려받는 환급액은 과세기준이 되는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연봉 등에 따라 사람마다 환급액에 차이가 난다. 예를들어 연봉 3천800만원의 직장인의 경우 100만원 더 소득공제 받으면 내년 1월에 18만7천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신용카드 많이 쓰면 효과는 얼마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신용카드 사용은 소득공제 효과보다는 소비성향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써야 할 돈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연봉 4천만원의 사람이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썼을 때 환급받는 돈은 11만2천200만원에 불과하다.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연금저축 300만원 고체 받으면 얼마나 되돌려 받을까.

▲올해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으로 늘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올해 안에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해 300만원을 한꺼번에 넣을 경우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돌려받는 돈은 56만1천원으로 환급액이 커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중도해지 시 해지가산세 등으로 인해 원금손실 우려가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ju.co.kr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6.2% 인상

11월부터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6.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귀속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를 적용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년도 귀속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자료를 받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예년 수준(2003년 6%, 2004년 6.3%, 2005년 5.6%)인 평균 6.2%(세대당 평균 월 3천151원) 오른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811만 세대 중에서 267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반

면, 98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446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 유발가 발생한 세대의 경우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실질소득은 늘지 않은 채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지 못해 보험료가 오른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이가 2007년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현재의 4천590원에서 2천620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조정된 보험료 고지서는 27일부터 발송된다.



삼성전자는 '움직이는 디자인' (모빌리티)이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26일 개막돼 다음달 11일까지 열린다. 삼성전자는 이 전시회를 통해 시대에 따른 시공간 이동의 변화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주택시장 안정 내년 최우선 정책"

금융연구원 주장

내년에는 경기둔화와 불확실한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년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꽤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박재현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과 정책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기 둔화 등 부정적 요인이 가세하며 올해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가격을 초기에 연착륙시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알아두어야 할 종부세 상식

통지문 못받아도 납세자 책임

내달 1~15일은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납부 기간이다. 종부세 대상 기준이 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작년의 5배 수준인 약 35만명으로 늘어난 만큼 부동산 보유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굳이 자신 신고·납부할 필요가 있다.

▲신고·납부 기간에 내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신고기간에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수정 신고할 수는 있지만 3%의 세액공제 혜택은 못 받는다. 반대로 과다신고인 경우에는 경정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1세대로 봐 합산 과세한다.

-올해 8월에 종부세 대상 주택을 팔았는데,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세대원들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공시가 기준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나 3억원을 초과하는 나대지 등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물리는 만큼 납세 대상이다.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 못 받았을 때는,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종부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10대 그룹 계열사 노조가입률 38%

삼성 0.5%·현대차 75%

주식시장에 상장된 10대 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노조가입률이 38%대로 국내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직원들의 노조인정률이 거의 0% 수준으로 '노조 불모지'인 것이 입증된 반면 현대차그룹은 75%에 달해 여전히 '노조 왕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내 10대 그룹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76개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노조가입률은 38.3%였다.

그룹별로 보면 현대·기아차 등 다른 '강성노조'가 표기한 10개 현대차그룹의 노조加入률이 75.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

로또복권 (제208회)

(제208회)

팝콘복권

(제31회)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수자 당첨자 수

14 25 31 34 40 44 24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760,767,400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1,787,277 34

3 5개 숫자 일치 1,438,536 1,224

4 4개 숫자 일치 54,787 64,277

5 3개 숫자 일치 5,000 1,030,103

등위 당첨금(원)

1 10억

2 5억

3 1천만

4 1백만

5 1만

6 2천

7 각조

1천

각조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수자 당첨자 수

14 25 31 34 40 44 24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760,767,400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1,787,277 34

3 5개 숫자 일치 1,438,536 1,224

4 4개 숫자 일치 54,787 64,277

5 3개 숫자 일치 5,000 1,030,103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수자 당첨자 수

14 25 31 34 40 44 24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760,767,400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1,787,277 34

3 5개 숫자 일치 1,438,536 1,224

4 4개 숫자 일치 54,787 64,277

5 3개 숫자 일치 5,000 1,030,103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수자 당첨자 수

14 25 31 34 40 44 24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760,767,400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1,787,277 34

3 5개 숫자 일치 1,438,536 1,224

4 4개 숫자 일치 54,787 64,277

5 3개 숫자 일치 5,000 1,030,103

</div